

왜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는가?



중세시대 노파와 마녀는 곧잘 '추함'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호밀밭 제곱>



못생긴 여자의 역사

클로딘느 사게르 지음, 김미진 옮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여성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작금에 이 같은 제목은 불온하기 짝이 없다. '못생긴 여자의 역사'라니...

사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은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다.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켜켜이 쌓인 결과이다.

왜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의무'인가? 왜 여성에게 '추함'은 죄악인가? 프랑스 툴루즈대학교 바벨연구소 연구원인 클로딘느 사게르의 오래된 여성 혐오의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클로딘느 사게르가 펴낸 '못생긴 여자의 역사'는 여성 혐오를 권력 관계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르네상스 시대, 여성이 추한 외모의 책임자이자 죄인이 되어버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함의 젠더'를 들여다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자는 "남성들은 자신의 권

남성 권력욕에 '여혐' 역사 반복 권력 반기들면 '마녀 사냥' 단죄 "美 강요하는 부조리 사라져야"

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고 설명한다. 미와 추의 규범이 형성되고 변화해온 지점에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권력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추함의 판단에는 그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다. 추한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주변은 행하니 비고, 왠지 불편한 분위기로 바뀐다."

추천서문을 쓴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다비드 르 브르통 교수는 여자의 추함은 외모가, 남자의 추함은 정신이 그렇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남자의 추함은 자기통제 또는 남성성의 결핍 같은 의미지만 여자의 추함은 존재 자체의 추함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은 탄생과 동시에 아름다워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존재마저 부정당했다. 마담 드 랑베르는 "여자가 추앙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외모 덕인데, 세월이 그 매력을 앗아가고 나면 여자는 빈털터리가 된다. 미모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추앙받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실 그리스 시대의 아름다움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차원을 아울렀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의 글에 비친 여성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그쳤다. 그들은 여성이 생리와 출산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삶에 온전히 열중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여성이 지닌 고유한 생리적 특징을 도덕적 한계로 연결했다. 철학자들 외에도 가톨릭 사제들, 작가들, 의사 등 사회 주류의 남성들이 특히 여성 혐오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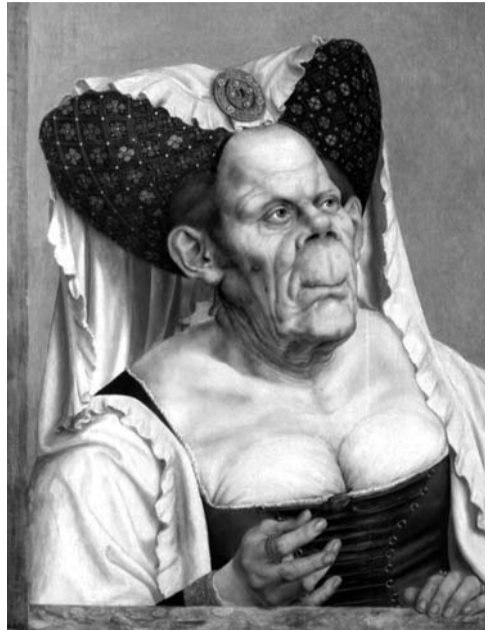
중세에 마녀로 판결을 받은 여성은 추함의 대명사였다. 알랭 레이의 '프랑스어 역사 사전'에는 "마녀를 늙고 추하고 악독하며 이상한 옷차림을 한 여자"로 정의돼 있다. 실제로 많은 그림에서 마녀는 못생긴 여자로 등장한다. 학자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여성을 단죄하는 방법으로 마녀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물론 근세에 이르러 철학은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평등 실현을 공헌한 프랑스 혁명 역시 여성의 해방과 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오랫동안 사회는 여성들의 투쟁을 조롱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고문과 화형으로 막아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권리와 자유는 저항과 투쟁의 산물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은 더 이상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모의 영역에서만은 미의 의무를 강요 받고 있다.

책을 번역한 김미진 박사는 '역사 후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의 문제다. 미덕으로, 사회의 원리로, 일상 속에 감춰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오랜 세월, 여성에게 강요되어 온 아름다움의 의무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지 물어본



상상 속 마녀의 모습.

적이지 않다... 이미 너무나 내면화되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아름다움과 추함의 도그마를 어린 친구들이 당연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기탁하였다."

<호밀밭·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악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쓰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김중광 지음, '놀러 가자고요'

김중광의 반어, 채만식의 풍자, 이문구의 입담을 갖춘 작가로 평가 받는 김중광. 김 작가가 8년만에 소설집 '놀러 가자고요'를 펴냈다.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잡지 지면에 발표했던 작품들 가운데 9편을 수록한 책은 농촌 소도시를 배경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인물들의 삶을 그려낸다. 특유의 검출한 입담과 페이스는 더 깊어졌다. 또한 표준어와 방언, 구술과 서술, 전설과 역사 등 대극점에 위치한 요소를 하나로 농쳐 세계를 조형하는 기술은 더 노련해졌다.

표제작 '놀러 가자고요'를 비롯해 '범골 달인 열전', '김사또', '보도랑 치기' 등 작품들은 대체로 김중광이 나고 자란 백호리 '범골'이라는 농촌 마을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김중광이 그려내는 농촌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어르신'이라 불리는 노인들의 대부분이다.

표제작 '놀러 가자고요'는 노인회장 김사또의 조강지처 오지랖이 마을 주민들에게 '놀러 가자'고 전화를 돌린다는 내용이다. 열댓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인물들 저마다의 곡절 있는 사연들이 지문 없이 대사로만 이루어진 '육성'을 통해 한상 꾸집하게 차려진다. 놀러 가자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안 들려요, 안들려!"만 들려온다.

노태훈 문학평론가는 "김중광이 그려내는 농촌의 풍경과 노인들의 모습은 결코 쇠락해 있거나 쓸쓸하지 않다. 그렇다고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며 "적당한 체념과 적당한 욕망이 공존하고, 그래서 딱 그만큼의 갈등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지는 농촌이라는 공간은 생의 말년에 이른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속 가능한 곳일지 모르다"고 평한다.

<작가정신·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사 C. 누스바움 지음, 강동혁 옮김 '분노와 용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분노의 사회다. 대한항공 '갑질' 사태는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정치, 경제, 사회, 사법 차원에서 이르기까지 온갖 불평등으로 인한 '갑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느끼고 삭이며 때로는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여성학자인 C. 누스바움 시카고대 에른스트 프론트 법문학 교수 '분노'와 '용서'를 재정의한 책을 펴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떠올리게 하는 '분노와 용서'는 분노의 영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분노의 본질이 복수와 연관돼 있는데 복수는 건전한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본다. 그렇다면 용서는 분노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일까?

저자는 세 가지 영역에서 분노의 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에서 자식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적 반응에 대해 문학작품의 분석을 곁들여 교육자로서의 지론 등을 내놓는다.

두 번째 '중간 영역'의 타인이 분노를 촉발하는 경우, 스포츠학파적 근육주의나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만일 거리두기가 어려우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사법제도에 분노가 개입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범죄예방이나 사후 범죄피해 복구에 분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비폭력'이라는 외양에 집중하는 대신 '비-분노'라는 감정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의 혁명으로 초점을 옮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폭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던 벨스 만델라를 높이 평가한다.

<뿌리와 이파리·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펜드리드 노이스 지음, 권예리 옮김 '사라진 여성 과학자들'

백의의 천사로 알려졌지만 보건 의료의 기초를 세운 통계학자이기도 했던 '나이팅게일',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했지만 남성 동료에게 노벨상을 양보해야 했던 '마이트너', 현대 대수학의 기틀을 세웠으나 여성이자 유대인이어서 학교에서 쫓겨났던 '노터'...

여성들은 16세기 말부터 과학 발전에 참여해 왔지만 오랫동안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왜 과학은 여성의 업적을 기억하지 않을까? '사라진 여성 과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책이다.

이 책은 최초의 프로그래머인 오거스타 에이다 바이런, 인슐린 분자 구조를 밝혀낸 화학자 도로시 크로프트 호지킨, 처음으로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한 화학자 거트루드 벨 엘리언 등 여성 과학자 16명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탐험출판사 출판사를 설립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과학 도서들을 출간한 펜드리드 노이스다.

여성 과학자들은 삶을 꿈꿀 때마다 가족의 반대 부딪혔으며,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 입학에 거부당하기도 했다. 때때로 그들이 이룬 과학적 성취보다 그들이 지닌 여성성이 부각돼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은 이러한 시대적 한계와 제약 속에서 때로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책에는 각 장마다 인물별 연표와 사진, 일러스트, 과학 용어 해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겼다. 시대적 한계와 제약,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여성 과학자들의 열정적인 삶과 놀라운 성취, 그들의 연구를 엿볼 수 있다.

<다른·1만4000원>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영우 내인 **백운광장역 상가 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5일 내정가 공개입찰

상가 전용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